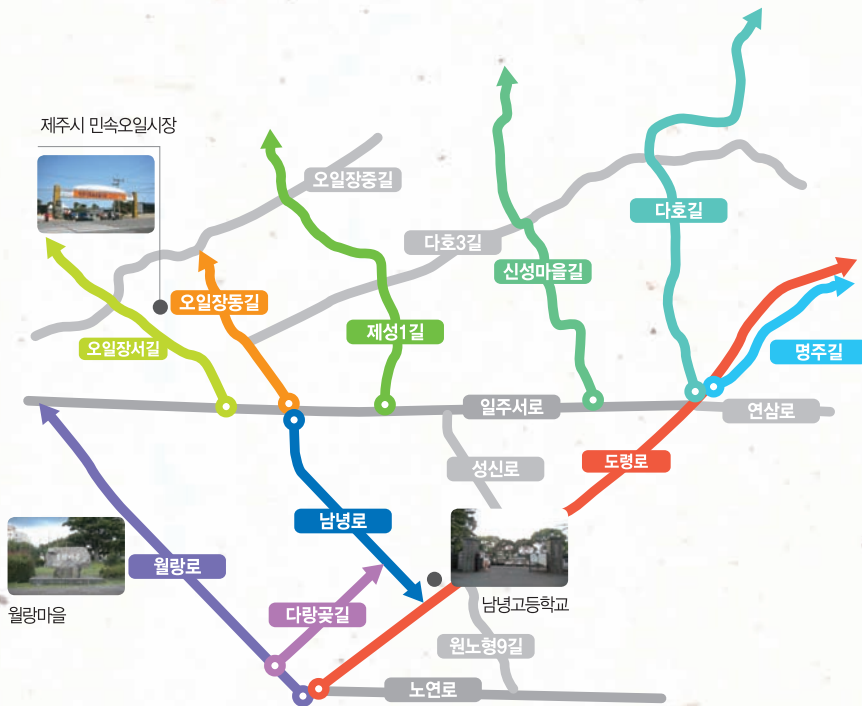


도령들이 넘던 언덕



제주성에서 대정지역으로 향하던 길목에는 쉬어가던 고갯길이 있었다.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던 이 언덕은 오늘날 신제주로 들어서는 길목이 되고 있다.



도령로 | 제주시 노형동 1296-12 ~ 제주시 연동 2496(약 2.1km)

오일장동길 | 제주시 연동 2396 ~ 제주시 도두1동 1212(약 0.6km)

오일장서길 | 제주시 노형동 1119-1 ~ 제주시 도두1동 2162-1(약 0.8km)

제성1길 | 제주시 연동 2419 ~ 제주시 도두2동 1438-2(약 1.1km)

신성마을길 | 제주시 연동 1939 ~ 제주시 도두2동 416-2(약 1.2km)

다호길 | 제주시 도두2동 162-2 ~ 제주시 용담2동 1952-2(약 1.5km)

명주길 | 제주시 연동 2510 ~ 제주시 연동 2500-5(약 0.5km)

남녕로 | 제주시 노형동 1294-1 ~ 제주시 연동 1079(약 0.7km)

월랑로 | 제주시 노형동 1288-2 ~ 제주시 노형동 2287-2(약 1.2km)

다랑꽃길 | 제주시 노형동 1280-4 ~ 제주시 노형동 1292-1(약 0.5km)

도령로 | 도령ㄴ루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노형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령로**는 이 지역의 옛 명칭인 도령ㄴ루에서 따온 이름이다. 옛날 제주성에서 대정지역을 향해 가던 사람들은 이 언덕을 넘어서 가야 했다. 특히 양반집안의 도령들이 이 고개를 넘어갈 때 자주 쉬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언덕을 도령들이 쉬어가는 고갯길이라 해서 도령ㄴ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신마을에 객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먼 길을 떠나기 전 목을 축이기 위해 잠시 쉬어갔을 것이다. 또 다른 유래에는 언덕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도적이 숨기에 좋은 장소였고, 밤이 되면 귀신이 나타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래서 ‘도적이나 귀신이 나타나는 고개’라고 도령ㄴ루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날 **도령로**는 서쪽으로는 노형로와 동쪽으로는 서광로와 이어지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주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오일장동길 / 오일장서길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오일장동길과 **오일장서길**은 닳새마다 장이 서는 제주시내 오일장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제주의 오일장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관덕정 앞에서 장이 열렸다. 그래서 제주성 안에서 열리는 장이라고 해서 ‘성안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관덕정 맞은 편에서 최초 오일장 자리를 표시한 표지석이 있다. 이후 오일장은 도시개발로 인해 여러 번에 걸쳐 자리를 이동해야 했다. 그러다 1998년에 비로소 현재 위치에 자리잡으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시민속오일장

제주시내 뿐만 아니라 제주의 주요 마을에 오일장이 서는데, 지역마다 장이 서는 날짜가 다르다. 1일과 6일은 대정과 성산, 함덕지역에서, 2일과 7일은 제주시내와 표선지역에서, 3일과 8일은 중문지역에서, 4일과 9일은 한림과 서귀포시내, 고성지역에서, 5일과 0일에는 세화지역에서 각각 장이 열린다.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오일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위기를 맞기도 했었지만, 오일장의 전통을 살리려는 많은 노력을 통해 오일장만의 경쟁력을 갖추나가고 있다.

제성1길 / 신성마을길 | 제성마을과 신성마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동쪽에는 제성마을이 있다. **제성1길**은 제성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제주공항 주변에는 제주공항이 확장되면서 원래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 새롭게 정착해서 생겨난 마을들이 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들이지만 마을마다 이름이 있을 정도로 나름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제성마을은 그런 마을 중 하나이다.

신성마을길로 연결되는 신성마을은 도두동 동쪽에 있던 몰래물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제성마을과 같이 공항 확장으로 몰래물마을이 사라질 처지가 되자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을 이뤘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뒤로했지만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호길 / 명주길 | 다호마을과 명주마을

다호길은 다호마을로 연결되는 길이다. 신성마을 동쪽의 다호마을은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부락이라는 뜻에서 다위라고 불렸었다. 그러다 화재가 자주 나자 마을 이름을 다호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벼락구렁이라는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다호마을에 한 부부가 아들을 하나 두고 살고 있었다.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자 부모는 제주성 안에 심부름을 보내곤 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날 성안에 심부름을 다녀온 아들의 신발에 흙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부모는 필시 날아서 다녀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가 아들에게 술을 먹이고 겨드랑이를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날개가 돌아있었다. 관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판이었다.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날개를 잘라버렸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집으로 벼락이 떨어져 그 자리는 그대로 연못이 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이곳을 벼락으로 만들어진 연못이라고 해서 벼락구렁이라 불렀다고 한다.

명주길은 명주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호마을과 도령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명주마을은 도령로와 연삼로, 신대로가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1970년대에 설촌되었는데 한 변호사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초창기에

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 공무원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제주공항 확장으로 몰래몰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전한다.

남녕로 | 남녕고등학교

남녕로는 도령로에서 갈라져 일주서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 옆에 남녕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남녕로라는 이름을 지었다. 1986년에 개교한 남녕고등학교는 제주출신의 재일교포 백이남 선생이 세운 학교이다. 1916년 구좌읍 김녕리에서 태어난 백이남 선생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선원 생활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려야 했다. 해방이 된 후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 끝에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닦아 나갔다. 일본에 살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김녕리의 교육시설과 마을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녕고등학교를 세워 제주의 중등교육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하였다. 백이남 선생처럼 재일교포 1세대들은 제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본에서 온갖 수모와 차별을 꾀꿉이 견디며 번 돈을 고향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각 마을의 전기와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를 새로 내어야 할 때, 학교를 지어야 할 때마다 재일교포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재일교포의 공덕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남녕고등학교

월랑로 / 다랑곶길 | 월랑마을

노형오거리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월랑로는 월랑마을이 있던 옛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월랑이란 이름은 동반월이라고 부르던 동쪽마을과 서반월이라고 불리던 서쪽마을의 두 반월이 하나로 만나면 보름달처럼 둥근 달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한다.



월랑마을

월랑로와 연결된 **다랑꽃길** 역시 월랑이라는 옛지명과 관련된 이름이다. 일설에는 다랑꽃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이두식 표기로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달월의 월(月), 사내 랑의 랑(郎), 꽃 화의 화(花)를 따서 월랑화라고 표기된 고지도가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이 지역에 월랑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월랑마을의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